

〈제 544호〉

-주간- **광주 경영계**

KEF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신세계

◆ 청년창업·사회적기업 지원 앞장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지난 13일 청년창업과 사회적기업의 판로확대, 성장지원을 위해 광주 서구, (사)창업지원네트워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창업과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으며, 서구청은 창업 인프라 구축 등

행정 지원, 광주신세계는 물품 홍보·전시·판매 지원, (사)창업지원네트워크는 창업자들의 교육, 멘토링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은행

◆ 대구은행과 함께 달빛동맹 농촌 봉사활동 실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8일 전남 담양에서 대구은행과 함께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달빛동맹 교류의 일환으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김태오 대구은행장을 비롯한 두 은행 임직원 총 70여명이 참여했으며, 호남과 영남의 금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바쁜 농번기철에 감나무 밭의 일손을 도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은행과 대구은행은 2015년부터 해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오가며 농촌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경북 상주 사과와 전남 보성 감자 수확, 경북 경산 포도밭 일손돕기 등에 이어 올해는 네 번째 봉사활동으로 전남 담양의 감나무 밭 일손 돕기를 시행했다.

오택캐리어

◆ 광산구청 '경로당 냉방환경 개선' 업무협약 체결

오택캐리어(대표이사 강성희)는 지난 20일 광산구청과 '경로당 냉방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삼호 광산구청장, 윤영준 오택캐리어 공장장(전무)을 비롯해 광산구청 관계자 및 오택캐리어 임직원이 참석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약속했다.

본 협약의 주요내용은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앞둔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냉방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와 그 외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타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II. 광주경충 소식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8일 광주경충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기초 공동사업에 대한 북구청, 서구청, 광산구청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예산배분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으며,

2018년 사업평가 인터뷰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11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회장 최상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지난 21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해냄실에서 제4회 재도약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중장년센터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일 중심의 생애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4가지 모듈을 활용한 집단상담 교육과 함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참여한 구직자 32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사무국 일지 (6.17 ~ 6.21)

6.18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노사민정실무협의회 개최 ● 내일이룸학교 협의체 회의 참석 ● 노동청 심사회의 참석 ●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 참석 	6.20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일경험드림 2차 직무역량강화교육
6.19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센터 제1회 생애설계 재직자 과정 운영 	6.21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조찬포럼 한국기록원 인증서 수여식 ● 제1447회 금요조찬포럼 ● 중장년센터 제11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 제1차 노사민정 실무분과 회의 참석 ● 노동청 심사회의 참석

〈제1447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6월21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이병훈 광주광역시문화경제부시장을 초청 <레트로와 기술혁명의 시대>란 주제로 제1447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문화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레트로란 과거의 복고주의를 지향하는 복고풍의 문화 현상을 말한다.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젊은 세대들에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현상으로 보여 진다.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열풍을 이야기한다.

복고 트렌드는 해당 문화 코드를 누린 중장년층이 주소비층이고 따라서 레트로 마케팅의 핵심은 그들의 향수에 소구하는 것이다. 반면 뉴트로란 미래와 복고풍을 결합시킨 것으로 주력세대는 1020세대이다.

뉴트로 마케팅의 핵심은 "경험한 적 없는 신선함"으로 지금의 10대 20대가 과거의 문화 코드를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과거에 유행한 물건이나 콘텐츠를 찾는 것은 그것들이 주는 색다름과 신선함 때문이다.

인터넷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것을 연결하여 2020년까지 인터넷플랫폼 가입자가 30억 명에 이를 것이고 500억개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인해 상호 간 네트워킹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도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 디지털도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II. 광주경충 소식

〈금요조찬포럼 '국내 최장수' 한국기록원 인증서 수여식 개최〉



「국내 최장수 포럼
금요조찬포럼」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
2019. 6. 21.
주최: KIF 광주경충자총협회 인증기관: KRI 한국기록원



본회(회장 최상준)는 지난 21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 경충 금요조찬포럼」이 KRI한국 기록원의 공식 최고기록인 민간 경제단체가 주최하여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 〈국내 최장수 조찬 포럼〉으로 인정받아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인증서 수여식을 위해 참석한 한국기록원 김덕은 원장은 이번 공식 최고기록 인증은 현재와 과거의 기록에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검증을 거쳐 한국 기록원 공식 최고기록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충 금요조찬포럼은 1990년 6월 1일 첫 회를 시작으로 29년 동안 매주 금요일 아침

진행되는 우리나라 명품포럼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기업CEO와 지역 노사민정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경영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강사로는 우리나라 저명인사들을 비롯 각계각층의 최고 전문가들이 경제, 경영, 노동, 역사,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하고 있다.

본회 최상준 회장은 “내년에 포럼 30주년과 1,500회 개최를 앞두고 기간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최고의 포럼이 되기 위한 다짐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금요조찬포럼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II. 광주경총 소식

〈인사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는「금요조찬포럼」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과 지역사회 리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광주경총이 30년 가까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최해 온「금요조찬포럼」이 한국기록원으로 부터 국내 최장수 포럼으로 인증 받아 인증서 수여식을 갖게 된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는 무엇보다 눈이오나 비가오나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과 녹록치 않은 여건에서도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 후원사 대표님들, 아울러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에도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힘든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지원해주신 광주광역시의 이용섭 시장님과 오늘 마침 연사로 와주신 이병훈 부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자축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금요조찬포럼」은 1990년 6월1일 당시에는 조찬포럼 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시절에 예산문제와 지방이라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기업경영 혁신을 통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시작한 것이 여러분의 호응 속에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한주도 거르지 않고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된 것은「금요조찬포럼」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장수 포럼임을 역사에 남기고, 내년에 포럼 30주년과 1,500회 개최를 앞두고 기간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최고의 포럼이 되기 위한 다짐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광주경총은 지역에 꼭 필요한 단체로 노사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금요조찬포럼」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21.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상준

1. 노사 동향

■ 노사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이견 지속

○ 정부는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6. 18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를 개최해 노사 의견 수렴

-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우리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

-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비준해야한다고 주장

○ 한편, 제108차 ILO 총회(6. 10 ~ 21, 스위스 제네바)에서 노사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입장 표명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협약 비준 추진 의지를 강조했으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할 것임을 언급

- 문재인 대통령은 6. 15 스웨덴 정상과의 회담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대선공약이며,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고 언급

- 손정식 경총회장은 금번 총회 주제인 '일의 미래'와 관련된 대표연설을 통해 각국 고유의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특수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존중해 노동시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 최저임금위원회는 지역별 공청회를 완료하고 최저임금 심의 본격 착수

○ 최저임금위원회는 6. 19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최저임금 관련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6. 5), 광주(6. 10), 대구(6. 14)권역 공청회 진행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대구권역 공청회(6. 14)에서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광고·화훼·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청년·여성·노동단체 관계자들의 의견 대립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차주 중 본격화 될 예정

-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적 기한은 6. 27인 가운데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
- 6. 25 제4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6. 27까지 매일 전원회의가 예정된 바, 차주 중 노사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본격적인 심의 개시 전망
- 다만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논란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다소 지연된 만큼, 금년도에도 최저임금 법적 기한을 넘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노동계와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우호적인 여론 조성 활동에 주력

- 양 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노동계에 우호적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6. 17 '재벌체제 개혁 경제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되 카드수수료, 임대료 문제 해결 등 요구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6. 18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예고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기본급 인상, 정규직 차별해소 등을 요구하며 7. 3 총파업 예고

※ 학비연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서비스연맹), 전국교육공무직본부(공공운수노조), 전국여성노조(미가입) 등 3개 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들은 시도교육청 소속으로 대다수가 무기계약직 신분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2017년부터 학비연대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간 집단교섭과 개별교섭을 병행해 왔으나 올해에는 노사간 교섭방식, 교섭의제에 대한 이견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학비연대는 사측의 교섭거부라고 주장하며 5.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제기
 - 학비연대는 집단교섭과 개별교섭을 병행하는 이중교섭 방식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개별교섭 없이 집단교섭만 진행하는 방식을 주장
- 학비연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5. 7 ~ 6. 14)를 진행해 조합원 95,000여명 중 66,000여명 찬성(69.3%)으로 가결
- 학비연대는 7. 3 민주노총의 '공공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 조정이 진행 중이나 임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해 총파업을 예고한 7. 3 이전 임단협 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따라서 학비연대 소속 조합원 비중이 높은 급식, 돌봄교실, 방과 후 수업 등에 대한 차질 발생 우려